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2호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불자 크리에이터 양성해 Z세대 매료할 콘텐츠를

[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① 왜 Z세대를 주목하는가
② 유튜브 속 불교 안보인다
③ Z세대 포교 콘텐츠 제언

Z세대 하루 4.4회 유튜브 시청
불교는 법문 · 방송 재송출 그쳐
기독교, 연예인 통해 조회수 UP

전직 불교BJ "경직돼 자체 검열"
원빈 스님 "제작능력 부족, 한계"
팀 구성 · 네트워크 필요성 제기

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에는 사실상 이들을 위한 불교콘텐츠가 없다는 분석이 본지 조사결과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개선과 불교계 콘텐츠 확보, 인재 양성의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Z세대 대세 플랫폼 '유튜브'

10대와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Z세대는 대표적인 인터넷 동영상 네트워크 '유튜브'의 이용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닐슨 코리안클릭'의 'Z세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분석'을 보면 Z세대들은 하루 평균 유튜브를 4.4회 실행했고, 51.5분 이용했다. 일평균 이용 시간이 10분대에 머문 다른 세대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즉, Z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속 불교 콘텐츠는 얼마나 될까? 유튜브에서 '불교' 주제어로 검색 시 연관콘텐츠는 16만 8000개로 '기독교'의 49만 5000개의 34% 수준이었으며 '부처님' 주제어 검색 시 연관콘텐츠도 8만 9400개로 '예수님'의 60만 5000개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영문 검색 시 차이는 더욱 심각했다. 'Buddhism' 연관콘텐츠는 206만개인 반면 'Catholic' 421만개, 'Christianity' 300만개가 검색됐다. 'Buddha' 연관콘텐츠가 394만개 검색됐지만 'Jesus'는 무려 5330만개나 검색됐다.

불교 콘텐츠 '다양성' 부족

유튜브 속 이웃종교 콘텐츠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콘텐츠 양과 조회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심각했다. 특히 유튜브 내 각 종교의 조회 수 상위 10위 내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 불교는 개신교계 콘텐츠에 비해 다양성이 떨어진다.

먼저 기독교의 '하나님' 연관 콘텐츠는 445만회를 기록한 기도문을 비롯해 370만 9000회를 기록한 기도문, 274만 1000여 회를 기록한 기도문, 229만 5000회를 기록한 시편 등 1~4위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콘텐츠였다. 하지만 5위부터는 연예인 합창단 공연(221만 8500회), 7위 가수 알리의 토크콘서트 힐링유(192만 2000회), 8위 가수 이정의 찬송가(192만회), 10위 가수 김범수의 찬송가(171만 6000회)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9위에 CCM모음(178만회)도 있었다.

여기에 '예수' '예수님' 연관콘텐츠의 경우 몰래카메라가 조회 수 1740만회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찬송가 뮤직비디오(159만 7000회)를 비롯해 또 다른 몰래카메라(128만 7000회), 율동 영상(57만 7000회), 애니메이션 예수(43만 7000회) 등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불교콘텐츠 중 '부처' '부처님' 연관콘텐츠는 조회 수 상위권 대부분이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영상이었으며, 이외에는 경전 독송이 전부였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의 경우 255만 7000여회부터 10만회까지 1위부터 6위까지와 8위와 10위를 차지했다. 7위에는 애니메이션 붓다(15만회), 9위는 '명상의 말씀'(12만회) 만이 위치했다.

최근에는 광덕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의 일대기와 법문이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지만 조회 수는 개당 1000회 아래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튜브 불교콘텐츠는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의 프로그램 재송출로 채워지고 있다.

불교 크리에이터 지원을

구희철 절오빠절언니 운영자는 "철없는 시도가 많아야 그 중 대중,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나온다"고 말했다. 구 운영자는 "불상을 옆에 놓고 가상토크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스님이 즉문즉설을 한다든지 다양한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도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결국 업로드 차원에서 자체검열이 되고야 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대를 맞아 불자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젊은 세대 포교에 나서고 있는 원빈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문을 전하고 있지만 혼자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한계를 느껴 2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서비스는 중단했다"며 "유튜브에서 'IGO절RUN' 이름으로 사찰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강산, 템플스테이 체험기를 전하는 무아TV 등이 있다. 보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편집과 제작 등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교 교수는 "좋은 설법 등 콘텐츠를 가진 스님이 영상제작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촬영기술이 좋은 이들이 불교콘텐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찰 청년회를 중심으로 팀과 모임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튜브 속 '부처님'과 '예수'

Buddha 콘텐츠	394만개
Jesus 콘텐츠	5330만개
불교 콘텐츠 1위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255만회
기독교 콘텐츠 1위 예수 몰래카메라	1740만회



100인 佛心이 전한 가사의 무게

"가장 수승한 복전(福田)의 옷이로다. 받들어 수하노니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가사 · 장삼 공승제가 열렸다.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서울 목동 반야사 신도 100인이 동학사 승가대학 화엄학림 스님 100여명에게 올린 가사에는 인천의 사표로서 중생구제에 매진해줄 것을 바라는 서원이 담겼다. 스님들도 이를 느낀 듯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며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외국인 눈높이 맞춘 마케팅 모색해야"

사업단, 13일 학술포럼 개최
"지자체 연계한 발전책 필요"
전문가들 실용적 방안 요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학술포럼, 팸투어 등을 잇달아 실시하며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치 확대방안 모색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사)한국관광학회는 2017 템플스테이 학술포럼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을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 비율은 2011~2014년 2만4000~2만5000명 선을 맴돌다 2015년 3만2337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들어섰다. 또한 올해 87개 사찰에서 열린 '봄 여행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도 2632명(총 6058명 중 43.3%)으로 지난 여행주간 행사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사 결과 '재참가 의사' 비율은 10% 수준에 그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인 여행자의 시점에서 템플스테이 현황을 바라보고 개선책을 찾아야만 템플스테이의 미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겸임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템플스테이의 애로점에 대해 △지역 터미널의 외국어 안내 및 영문과 픽토그램 표기 부재 △온돌방 형태의 낯선 숙박환경 △각종 편의시설 및 편의용품 미흡 △좌식 식사 △발우공양에 대한 호불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교수는 크게 '시범사업 운영'과 '지자체 연계'를 꼽았다. 정 교수는 "서양식에 맞춰 침대 · 개별화장실 등 설치하는 수용태세 개선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또한 템플스테이는 개별 사찰의 노력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순례길 등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터미널 및 역사에서 사찰까지 이동하는 셔틀 운영 등 교통편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능해 · 대은 · 백운 · 지홍

6월 15일 후보 등록 마감
오는 7월 13일 선거 개최


능해 스님


대은 스님


백운 스님


지홍 스님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에 능해 · 대은 · 백운 · 지홍 스님이 입후보했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6월 15일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前 총무부장 능해, 해동불교대학장 대은, 前 총무원 부원장 백운, 前 중앙종회 부의장 지홍 스님이 각각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선거는 7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들 후보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선 확정되면 신임 총무원장은 9월 23일부터 4년 임기동안 활동하게 된다. 〈사진은 가나다 순〉

김주일 기자

●금산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수요일, 마음이 쉬는 수요일
전통산사에 머물며 마음 쉬는 도리를 깨우치시길 기원합니다.
금산사 주지 성우합장

마음쉬는 수요일



주요 프로그램 국보62호 미륵전 문화해설, 마음콘서트, 범종체험, 명상, 탁본체험, 사찰음식 체험



정관스님(사찰음식 대가)
· 백양사 천진암 주지
· Netflix'세프의 테이블' 시즌3 출연
· 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컬리너리 시네마 섹션 초청

마음쉬는 수요일 1박 2일
대상 : 18세 이상 성인(참가비 무료)
예약 : http://www.geumsansa62.com
문의 : 063-542-0048

해당 월 1일부터 예약접수 받습니다.
개인 접수합니다. 단체는 받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성인들만을 위한 행사입니다.
어린이 학생 동반은 불가하오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종무소 : 063-548-4441~2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http://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마음콘서트 출연진


6.28(수)
조정육(미술사가)
옛 그림에서 나를 찾다


7.26(수)
김용택(섬진강 시인)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


8.30(수)
명법스님
은유로 쓰는 나의 이야기


9.27(수)
정호승(시인)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10.25(수)
임진모(음악평론가)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후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김제시